

## 신라 무덤에서 발굴된 로만글라스

윤상덕 | 108호 신라실 | 18:00~18:30

유리는 기원전 4,000년 전에 서아시아 지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후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유리그릇은 기원전 2,000년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롱불기 기술이 발명된 기원전 1세기 이후에는 보다 쉽게 유리그릇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만글라스(Roman Glass)’로 알려져 있는데, 로마가 통치했던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주로 만들어졌고 실크로드를 통해 동북아시아에 전해졌습니다.



그림 1 각종 유리그릇

이러한 서아시아의 유리그릇은 신라에도 수입되었는데, 경주의 4-6세기의 무덤에서 25점에 달하는 각종 유리그릇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신라의 최고 계층의 무덤인 황남동 일대의 거대한 봉분이 있는 돌무지덧널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금관이 나온 무덤인 황남대총 북분, 서봉총, 금관총, 금령총, 천마총에서 주로 발굴되어 유리그릇은 신라 지배층의 상징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리그릇은 일반적으로 대롱불기 방법으로 제작되며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제작된 ‘로만글라스’와 사산조 페르시아산으로 보입니다. 일부 그릇은 형태가 신라의 금속그릇과 유사함을 들어 신라제로 보기도 합니다. 신라에서의 제작 여부는 유리의 조성성분,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릇 이외의 유리제품은 신라에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신라 무덤에서 많이 출토되는 유리구슬은 거꾸집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림로 14호 무덤에서 출토된 말띠드리개와 말띠꾸미개는 감색의 유리로 장식되었는데, 이 말갖춤(馬具)은 전형적인 신라 양식으로 신라인들이 직접 유리를 가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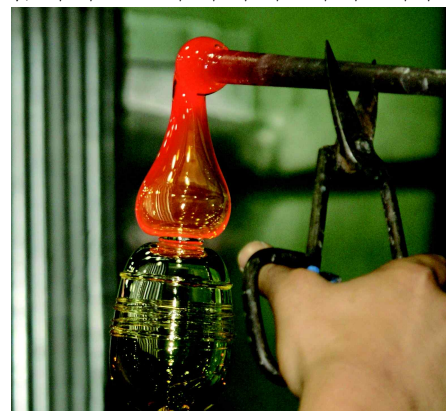


그림 2 유리그릇 제작(대롱불기)



제66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1월 13일)

## 색의 향연, 신명연의 꽃그림

자하 신위 탄생 250주년 기념 서화전 - 자줏빛 노을에 물들다

이재호 | 202호 서화실Ⅱ | 18:00~18:30

자하紫霞 신위申緯(1769~1847)의 서화 가풍은 맏아들 신명준申命準(1803~1842)과 둘째 아들 신명연申命衍(1809~1886)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신명연의 호 애춘藹春은 자신이 어린 시절 지었던 ‘봄눈과 봄비가 어우러져 자욱하네(春雪春雨同藹藹)’라는 시구에서 따 온 것입니다. 신위는 아들의 시재를 사랑하여 그 구절을 빌려 시를 지어 격려하였습니다. 신명연의 호에는 부친 신위의 애정이 어려 있습니다.

신명연은 17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무관직을 지냈습니다. 동시대에 신위는 무관보다도 화가로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왕오운四王吳惲을 비롯한 청나라 문인화가의 산수화를 선구적으로 습득하기도 했으며, 운수평惲壽平(1633~1690)과 추일계鄒一桂(1686~1772)의 화풍을 연상케 하는 섬세하고 세련된 화조화에서 발군의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화보畫譜를 통해 학습한 정제된 구도와 형태미, 실물에 대한 면밀한 관찰로 이룩한 사실적인 세부묘사, 담채와 진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설채設彩 기법은 도화서 화원조차 따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큰 줄기는 윤곽선 없이 몰골법으로 그리고 꽃잎은 섬세한 필선과 채색으로 묘사하여 화면에 긴장과 이완을 조화롭게 구사하였습니다. 신명연의 화조화는 화려함과 함께 시적인 정취가 가득합니다. 스스로 지은 시를 그림에 더하거나 역대 명시名詩의 구절을 뽑아 정갈한 글씨로 썼습니다. 혹은 식물백과사전인 『광군방보廣羣芳譜』 등을 인용하여 화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꽃에 대한 신명연의 뜨거운 관심은 ‘벽癖’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남계우南啓宇(1811~1888)는 남구만南九萬(1629~1711)의 5대 손인 명문가 자손이면서도 나비를 집요하게 탐구하여 많은 그림을 남겼으니, 이러한 ‘벽’은 동시대에 공유된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드레 에카르트(Andre Eckardt, 1884~1971)는 『조선미술사』(1929)에서 신명연의 그림 방식을 “명확하고 극히 세부까지 그려낸다.”고 하여 20세기 초에까지도 화조화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심지어 “부친 신위보다 유명했다.”라 하여 청출어람靑出於藍한 인물로 기억하였습니다.

제66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1월 13일)

## 일본 무사武士 계층의 예술후원

정미연 | 311호 일본실 | 19:00~19:30

현재 일본실에는 일본의 전통예능인 노가쿠(能樂)의 의상과 가면, 겐지모노가타리화첩(源氏物語畫帖), 그리고 나베시마(鍋島) 도자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의복과 목공예, 회화, 도자기 등 종류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일본의 무사 지배층이 애호했던 미술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 1185-1333) 이후 메이지유신(明治維新)까지 계속 무사계급이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교토의 귀족(公家)보다 학문과 교양은 부족했지만,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예술을 끊임없이 발굴해내어 발전시켰습니다.

노가쿠는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부터 존재했던 사루가쿠(猿樂)라는 가무극歌舞劇이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6-1573)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 1358-1408)의 후원을 받으며 지금의 노가쿠 형태로 발전한 전통예능입니다. 노가쿠는 이후 무사들의 연회에 빠뜨릴 수 없는 예능으로 에도시대까지 중하게 여겨졌습니다. 한편 『겐지모노가타리』는 헤이안시대 11세기에 창작된 일본 최초의 소설로서, 헤이안궁정의 우아하고 화려한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겐지모노가타리』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인 ‘겐지에(源氏繪)’는 무로마치시대 이후 교토 궁정의 교양과 학식을 동경하는 무사계급에 의해 주문되고 소비되었습니다. 정교한 그림과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종이에 유려하게 흘러 쓴 글씨로 이루어진 겐지에 화첩은 무사계급이 갈망하는 교양 있는 귀족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켰을 것입니다. 나베시마 도자기는 일본 사가번(佐賀藩)의 다이묘(大名) 나베시마 가문이 에도막부(江戸幕府, 1603-1867)의 도쿠가와쇼군가(徳川將軍家)와 다른 다이묘들에게 진상 혹은 선물하기 위해 만든 그릇입니다. 나베시마 도자기는 일반 유통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성을 기울여 소량 생산하였으며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유입된 조선의 도공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된 규슈지역 도자기는 이처럼 무사계급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으며 발전하여 나베시마를 비롯해 이마리(伊万里), 구타니(九谷) 등의 명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노가면(고베시미), 17-18세기	겐지모노가타리화첩, 17세기	나베시마 송죽매문접시, 17세기



## 가야사의 국제적 관점

윤온식 | 107호 가야실 | 19:00~19:30

가야는 공존입니다. 여러 가야가 함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여러 나라가 각축을 하던 삼국시대는 가야호로 통합을 원했습니다. 신라는 진한의 소국을 통합하여 중앙집권화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존의 왕국 가야는 통합을 추구한 신라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뭉쳤기 때문이요, 철을 다루는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가락국을 세운 김수로, 거친 바다를 헤치고 가락국에 온 허황옥은 모두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바다를 끼고 교류하던 가야에는 이국異國의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살았고, 다양한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를 끼고 세계 여러 곳과 교류하였기 때문이며, 거기에 철이라는 귀한 수출품이 있었습니다.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독자적으로 대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듯 가야의 고분군에서는 중국을 비롯하여 왜, 신라, 백제, 고구려 등과 교류한 증거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가야는 각기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 관계를 독자적으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토기는 가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비슷한 형태의 토기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굽다리접시만 보더라도 바깥으로 벌어진 입을 가진 가락국(금관가야), 불꽃무늬의 구멍으로 장식한 아라국(아라가야) 등 작은 차이지만 제작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림 1. 손잡이를 붙인 화로모양 토기, 가락국, 4세기